

김덕용, 김지희 2인전 'K – Artistes sous le ciel de Paris 2022'

[아트코리아방송 = 김한정 기자] 갤러리 엠나인에서는 임인년 새해 첫 전시로 2022년 1월 16일 일요일 오후, 김덕용, 김지희의 2인전이 열리고 있는 전시장에 들러 김종근 미술평론가가 진행하는 두 작가의 작품해설을 들었다.

김종근 미술평론가는 작품해설에서 “김덕용 작가와 김지희 작가는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밝히고 미술계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두 작가의 2인전이야말로 의미있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김덕용 작가의 작품에서는 고전적인 작품에서 벗어나 서정적이고 침묵적인 새로운 시도로 바다의 이미지를 자개를 이용하여 바다의 수평선을 아스라이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김덕용 작가의 백자 향아리 작품에서는 “이조백자의 우아하고 단아한 이미지 위로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희 작가는 남다른 시선으로 소녀의 모습에 화려한 장식으로 알려진 작가로 근래에는 작품을 완성하는 대로 절찬리에 판매되는 인기작가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지희 작가의 특징이나 매력은 다양한 소녀의 얼굴상을 각 작품마다 전혀 다른 바탕색과 형상으로 나타내었으며, 안경에 붙인 액세서리, 짙은 붉은 입술의 소녀의 얼굴을 화면 중앙에 포착시키면서 각기 다른 색상과 이미지를 더해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 엠나인이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할 전시 기획 프로젝트인 K – Artistes sous le ciel de Paris 2022 참여 작가의 작품을 1월 8일부터 2월 25일까지 소개하고 있다.

갤러리 엠나인은 세대를 넘나들며 미술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이끌고 있는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통해서 신선한 조합과 그 안에서 어우러지는 미감을 관람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출처: 아트코리아방송(<http://www.artkoreatv.com>)